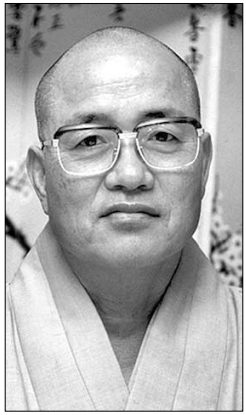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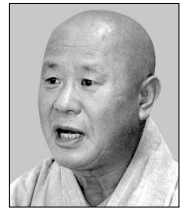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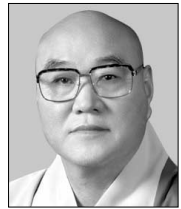




기호1 지관 스님



기호2 정련 스님



기호4 월서 스님(왼쪽 위)
기호5 대우 스님(오른쪽 위)
기호6 각명 스님(왼쪽 아래)



‘탄탄한 경륜’ 對 ‘참신한 이미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지관·정련 스님 양강 구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가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과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의 양강 구도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광)는 10월 21일 오전 9시 이전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추천한 결과 기호 1번 지관, 2번 정련, 3번 법열, 4번 월서, 5번 대우 스님 순으로 정했다. 9시 이후 후보 등록한 각명 스님은 기호 6번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제143차 회의에서 선거법 제9조 3항을 이유로 법열 스님 자격 박탈을 서류미비로 대우 스님 심사부류 결정을 내렸다. 중앙종회 총책모임 일승회(회장 종광)와 화엄회(회장 장주)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관 스님은 지난 9월 20일 유성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위 ‘합의추대권’ 속에 출마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용주사 해인사 수탁사 직지사 송광사 등의 교구본사 지지를 받고 있는 지관 스님은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학승의 이미지와 많은 제자들이 강점이다. 지관 스님은 1947년 사미계, 53년

구족계를 수지한 뒤 해인사 주지, 동국학원 감사, 중앙종회 부의장, 동국대 정각원장·불교대학장·교육대학원장·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 및 이사,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맡고 있다. 총책모임 보림회(회장 설승) 금강회(회장 보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련 스님은 31대 총무원장 선거에도 출마설이 나왔다. 부산지역에서 어린이 포교사와 복지 봉사자 맡은 노력을 해 온 정련 스님은 월정사 대웅사 은해사 쌍계사 관음사 등의 교구본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정련 스님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대사회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8년 사미계, 68년 비구계를 수지한 정련 스님은 조계종 총무부장·포교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내원정사 주지, 물론 대중합사회복지관 관장, (사)지구촌 공생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일직잡지 출마선언을

한 월서 스님(호계원장)이 조류독감 예방기금을 보전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월서 스님은 1966년 사미계, 59년 비구계를 수지한 뒤 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중앙종회의장, 4·5·6·8·10·12대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불국사 주지, 종단협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계원장과 서울 불국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1974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한 각명 스님은 87년 경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5년 중앙승가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청계사 주지, 총무원 호법부 호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승가대 대학원 석사학 통합학부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성명

한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 총무원장은 △정경성 △도덕성 △개혁성을 갖춰야 한다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결단코 이루며, 평등하고 투명한 종단을 운영해 참된 교육과 수행, 교화가 심도 있게 실현돼 한국불교의 새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센터 공개질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도 21일 발표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재결한 것은 반복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남동우·조용수·유철주 기자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법난·분규 겪으며 ‘개혁’ 주체로

탄성스님 격변기마다 권한대행 두차례

의현·월주 스님 ‘3선시도’ 종단사태 불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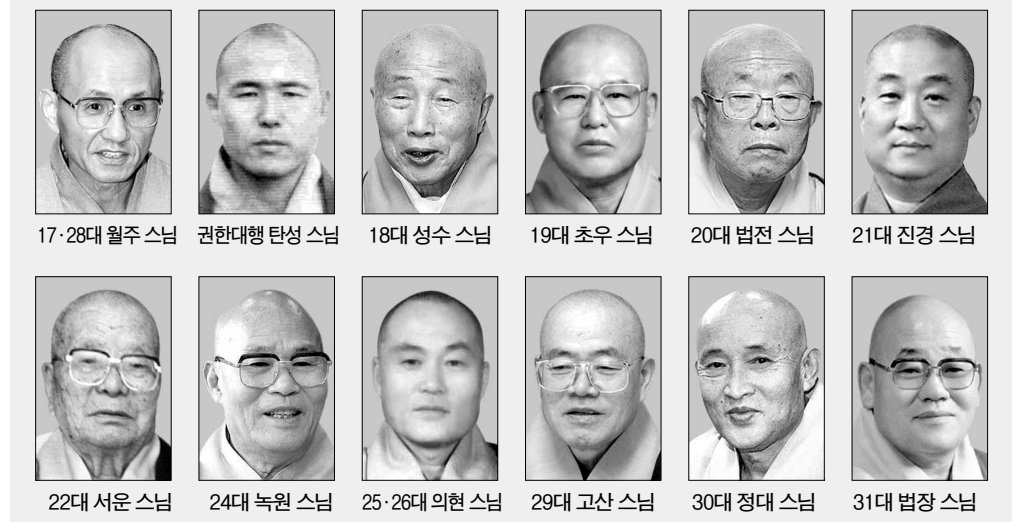
80년대 이후 총무원장들... 25년간 18명 자리 이어와

‘도전과 응전의 시대.’ 1980년~2005년은 한국불교사에서 격동의 시대였다. 한국불교는 교계 안팎에서 비롯된 법난과 분규란 총격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란 자리는 바로 그 한가운데 위치했다. 종단이 80년 10·27법난, 94년과 98년 분규를 겪는 동안, 총무원장 자리를 거쳐 간 스님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밀려나가거나 민주화 흐름과 함께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불교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함께 보여주었다. 94년 자체적인 개혁이 시작된 후 한국불교는 사회 속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노력했다. 최근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진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도 이 연장선 위에 있다. <조계종사 근현대관> 집필자인 박희승 씨는 “80년대 불교계의 주요 화두는 ▲종단 민주화와 자주화 ▲대중적인 참여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 등이었고, 90년대 종단이 문제들은 구체화될 계기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총무원장은 이런 흐름을 끌고와 종단 민주화와 자주화, 승가교육 체계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길 요구받았다. 박씨는 “90년 후반 불교의 사회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뿌리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1980년 초 한국불교는 모처럼 맑은 화해 무드를 만끽했다. 3년 동안 지속된 개운사측과 조계사측의 분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제17대 총무원장(재임 80.04.26~80.11.08)에 선출된 월주 스님은 군사정권에 의한 10·27법난으로 중도하차했다. 이후 권한대행 탄성(80.11.08~81.01.16),

18대 성수(81.01.16~81.06.10), 19대 덕진(81.06.10~82.01.07), 20대 법전(82.01.07~82.04.06), 21대 진경(82.04.06~83.09.03), 22대 서운(83.09.03~84.01.23), 23대 석주(84.01.23~84.08.01), 24대 녹원(84.08.01~86.08.25), 25대 의현(86.08.25~90.08.26), 26대 의현(90.08.26~94.04.18), 27대 탄성



(94.04.18~94.11.25), 28대 월주(94.11.25~98.11.20), 권한대행 도법(98.11.20~98.12.29), 고산(98.12.29~99.10.18), 권한대행 월택(99.10.18~99.11.23), 3대 정대(99.11.23~03.01.15), 권한대행 선용(03.01.15~03.02.24), 31대 법장(03.02.24~05.09.11), 권한대행 현고(05.09.11~) 스님 등 18명 스님들이 1980년 4월부터 25년간 총무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무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을 조금 넘기고 있다. 재임에 성공했던 의현 스님을 제외하면 녹원·정대·법장 스님 등도 4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10·27법난과 94년 종단개혁·98년 종단사태 앞뒤로 임기 1년 미만의

‘단명 총무원장’의 체제가 7번이나 지속됐다. 탄성 스님은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맡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개월과 7개월 간 총무원장을 책임졌지만 조계종의 변화와 개혁에 많은 공헌을 했다. 80년 10·27법난 직후 수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무원장 중심제 등 종헌총법 개정을 매듭지었으며 94년 종단개혁 직후에는 현행 총

무원 포교원 교육원 3원 체제, 교구자치제, 총무원장 선거인단제도 등 제도개혁을 이끌어냈다. 탄성 스님은 소임이 끝나면 수행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짧은 재임기간에 비해 오랫동안 불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총무원장이 되고 있다. 월성 죽림산사 회주 선혜 스님은 “탄성 스님은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총무원장을 맡아 공심으로 총무를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선혜 스님은 또 “고산 스님은 계율에 밝고 살림을 잘해 종단 안팎의 기대를 받았지만 뜻을 펴보지 못한 채 낙마했다”고 아쉬워했다. 의현 스님과 월주 스님을 80·90년대 총무원장 지위를 둘러싸고

직·간접적인 악연(?)을 맺고 있다. 월주 스님이 군사정권에 의해 자리를 빼앗겼다면 의현 스님은 군사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상 첫 총무원장 재임에 성공했다. 두 스님은 또 ‘3선 시도’로 종단사태를 촉발시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의현 스님의 3선 시도는 94년 종단개혁의 촉매가 됐고 월주 스님의 3선 시도는 98년 종단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의현 스님은 불교방송 출범과 중앙승가대 4년제 정규대 승격에 기여했으나 94년 종단개혁 직후에는 현행 총

무원장에 선출됐다. 월주 스님은 종단 민주화와 불교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깨달음의 사회’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불교의 사회적 위상 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대 스님은 98년 사태 이후 뒤늦게 종단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님은 ‘고도의 정지력’을 발휘해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이 두드러진 성과다. 최근 열린 법장 스님은 불교 복지 활성화와 한국불교 세계화에 노력을 세우고 대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펼쳐 불교위상을 크게 높였다. 강유신 기자

사지재계-조계종 총무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p>일본 동북 사찰순례 4일 참가비 : 699,000원 출발일 : 11/7,14,21,28 (매주 월요일) 12/5,12,19,26 (매주 월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인천-아키타-히라이즈미-하나미키(2)-모리오카-다자와(1)-아키타-인천 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흑석사,종중사,모월사,금색대관음,뉴토온천,이와테성 유적지 * 온천호텔 4인1실 기준 (2인1실 6만원 추가) 	<p>일본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4일 참가비 : 699,000원 출발일 : 11/2,6,9,13,16,20,23,27,30 (수,일) 12/4,7,11,14,18,21 (수,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인천-치토세-노보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요진케(1)-삿포로-인천 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아이누민속촌지옥계곡쇼와산신공목장분화구야호수유림선, 후카다시야수물무로란 만케시사찰삿포로 동본원사 사찰 * 온천호텔 4인1실 기준 (2인1실 6만원 추가) 	<p>중국 성도/낙산/아미산 성지순례 6일 (중국 4대 불교성지 문헌보살의 도량 아미산) 참가비 : 899,000원 출발일 : 11/10,17,24(매주 목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인천-성도(1)-낙산-아미산(2)-성도(2)-인천 항공: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낙산대불 유림선 이용 관광, 아미산에서 금정-케이블카 왕복, 만년사-케이블카 편도 포함보국사, 복호사 관광 포함 	<p>중국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6일 (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희귀 체험) 참가비 : 1,599,000원 출발일 : 11/8,15,22,29(매주 화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 항공: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낙산대불 유림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색람사, 철봉사,포탈라궁,대사, 팔각사 순례), 시가체(자스룬부스 순례), 장체(백가사,삼도호 순례)
<p>중국 상해/소주/항주 불교 성지순례 4일 참가비 : 549,000원 출발일 : 10/31, 11/7,14,21,28 (매주 월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인천-상해(1)-소주(1)-항주(1)-상해-인천 항공: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옥불사,홍구공원 정산사,용화사,서커스관광, 영은사,한산사,종정원,발발사지 체험, 서유유람 동방명주탑 	<p>중국 북경 불교 성지순례 4일 참가비 : 549,000원 출발일 : 10/31, 11/3,7,10,14,17,21,24,28 (매주 월요일, 목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인천-북경(3)-인천 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자금성, 써커스 관광, 만리장성(케이블카), 용경협(유림선),천단공원,이화원,유리창·영광사, 불아사리탑(부처님 치아 사리),벽운사, 오백나한당 	<p>인도 불교 성지순례 9일 참가비 : 1,990,000원 출발일 : 11/3,10,17,24 (매주 목요일) 12/1,8,15,22,29 1/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슈나가르(1)-파르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사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항공: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특급호텔, 호텔식(음식가격 OK) 기원정사사위성지, 석가탄신지,아쇼카왕석주,열반당,마하보디사원, 죽림정사,다믹스투파 등 	<p>인도 불교 성지순례 11일 참가비 : 2,190,000원 출발일 : 11/6,13,20,27 (매주 일요일) 12/4,11,18,25 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정: 델리(1)-파르나(1)-나란다-라지기르(1)-부다가야(2)-사르나트-바라나시(1)-쿠슈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럭나우-델리(1) 항공: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특급호텔, 호텔식(음식가격 OK) 기원정사사위성지, 석가탄신지,아쇼카왕석주,열반당,마하보디사원,죽림정사, 다믹스투파,나란다대학유적지,영취산 참배, 나란지강 등